

최다선 의원 마지막 등원...瑞雪 맞으며 눈물속에 떠나다

국회의사당 영결식 엄수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오후 국회 잔디광장에서 유족과 측근, 정계인사, 일반 시민들의 애도속에 엄수됐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빈소인 서울대병원을 출발한 운구차는 이날 오후 2시께 슬픔을 가득 싣고 영결식장인 국회에 도착했다.

최연소 국회의원, 최다선(9선) 의원, 최연소 야당 총재 등 한국 헌정사의 기록제조기 김 전 대통령은 이렇게 슬픔과 애도속에 마지막으로 국회에 등원했다.

이날 오전부터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던 눈발은 정중곡 연주에 맞춰 점차 줄어들더니 영결식장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김 전 대통령을 기다리던 추모객들의 머리와 검은색 옷에 얹혀 쌓여갔다.

영결식장 곳곳에선 "서설(瑞雪·상서로운 눈) 아나나"면서 전날 장지에서 발견된 7개의 '봉황알 바위'와 연관짓는 말도 들렸다. 운구행렬이 들어설 때는 눈발이 다소 강해지더니 운구행렬이 국회를 떠나갈 때는 다시 약해졌다.

이날 김 전 대통령을 영결(永訣·죽은 사람과 영원히 헤어짐)하기 위해 모인 인사는 예상보다 적었다. 애초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마련한 영결식장 좌석은 곳곳이 비어 7천명가량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한낮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가 푹 떨어질 탓이 커 보였다.

그러나 굶은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담요와 손난로에 기댄 채 온 마음으로 첫 문민대통령 YS의 영면을 기원했다.

영결식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던 손명순 여사가 예뻐한 표정으로 좌석 맨 앞줄에, 그 오른쪽으로는 장남 은철·차남 현철씨를 비롯한 유족이 앉았다. 손 여사 왼편에는 정의당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참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은 이들 옆에 자리했다. 거동이 불편한 YS의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내부부장관도 맨 앞줄에 앉았다. 뒷줄에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 흥업씨와 새누리

굶은 날씨에 좌석 곳곳 비어

민주화 동지 김수환 추도사

손명순 여사 일어서지도 못해

당 서정원 최고위원, 김덕룡 전 의원 등 YS를 따랐던 '상도동계' 인사들이 앉았다.

그 뒷줄에는 새정치연합 권도갑 상임고문, 김옥두·이훈평 전 의원, 한광옥·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DJ의 '동교동계' 인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박관용 임채정 김형오 박희태 김창희 등 전직 국회의장들과 정영일·이수성·이홍구·한승수·고 건·한덕수·김황식 등 전직 총리들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례와 YS의 약력 소개로 시작된 영결식에서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총리는 조사를 통해 "온 국민과 더불어 거산(巨山·YS의 호) 김영삼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YS의 민주화 운동 동지인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추도사를 하자 영결식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추도사 내내 눈물을 꺾 참던 김 전 의장은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대목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은 붓물 터지듯 나온 눈물로 범벅이 되고 말았다.

차남 현철씨는 영결식 시작 때부터 눈시울을 붉히더니 YS의 생전 영상이 나오자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다. 한 초등학생이 YS에게 '확실히'를 정확하게 발음해달라고 주문하자 YS가 '확실히(확실히)'라고 말하는 영상 대목에선 YS의 유머에 영결식장 곳곳에서 웃음도 나왔지만, 현철씨는 선전의 정겨운 모습에 오히려 슬픔이 배가된 듯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듯한 손 여사는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비스듬히 떨어뜨리고 있었다. 두터운 검은색 외투를 입은 손 여사의 검은 눈은 움푹 패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 여사는 국민의례 때 일어서지도 못했다.

영결식에선 YS의 종교인 개신교를 시작으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 순으로 종교의식이 거행되고 YS가 생전에 즐겼던 노래 '청산에 살리라' 등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영결식 마지막에는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총(弔絙) 21발이 발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안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엄수된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 전 대통령의 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완공 못 본 '김영삼 도서관' 앞 정차 아쉬움 달래

배웅 나온 시민들 스마트폰으로 마지막 여정 담아

서울대병원~현충원 운구행렬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은 26일 서울대병원을 출발해 여의도 국회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이 머물던 상도동 사저를 둘러보고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김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10여 대의 경찰 사이드카와 선도차, 영정을 단 무개차(無蓋車·오픈카)를 앞세우고 빈소인 서울연건동 서울대병원을 출발했다.

김 전 대통령의 관은 캐딜락 리무진 영구차 차량에 실렸고, 그 뒤로는 유족 등을 태운 대형버스가 뒤따랐다.

눈발이 흠날리는 가운데 운구행렬은 광화문을 지나 세종로사거리, 공덕동사거리, 마포대교 등 11km를 달려 약 20여 분만인 1시50분께 영결식장인 국회의사당에 동문을 통해 도착했다.

운구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나온 시민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여정을 담거나 물끄러미 행렬을 바라보며 고인을 기렸다.

국회의사당 영결식 후 운구행렬은 선도차와 대형태극기의 네 귀퉁이를 맞잡은 경찰차 4대가 앞장을 서고 영정을 단 차와 영구차가 뒤따르는 형태로 바뀌었다. 운구행렬 좌우는 경찰 사이드카가 호위했다.

행렬은 여의2교를 지나 노들길, 상도터널을 거쳐 고인이 1969년부터 46년간 지내온 상도동 사저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오후 4시께 상도동 사저 인근에 도착한 이후 유족들은 별도로 마련된 승합차로 옮겨타고 김 전 대통령의 영정과 함께 상도동 사저로 이동했다. 사저 인근에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민주주의의 거목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를 애도합니다'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회 명의의 근조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었다.

유족들은 추운 날씨에도 이웃들이 고인의 영정을 기다리며 운집한 좁은 골목길을 지나 4시10분께 사저에 도착했다.

사저에 도착한 김 전 대통령의 아들 은철·현철씨 등 유족들은 장손인 성민씨가 든 영정을 앞세우고 고인이 두 차례 가택연금을 당하고 단식 투쟁을 벌인 현장이기도 한 사저의 1층 응접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고인을 추모했다.

운구행렬은 이어 오후 4시25분께 현재 공사 중인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인근을 지날 때 잠시 정차해 김 전 대통령이 끝내 완공을 보지 못한 도서관을 마지막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에는 고인의 대형 사진과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대변한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일부 시민은 영구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옆을 따라 걸어가며 현충로를 통해 정지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향하는 고인을 배웅하기도 했다. 영구차는 서울대병원을 출발한 지 약 3시간여 만인 오후 4시38분께 현충원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현충원 묘지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의 묘' 새긴 목재 임시묘비

실제 비석은 내년 1월께 제작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일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 묘소 봉분 앞에는 목재로 만든 임시 묘비가 세워졌다.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따르면 이날 세워진 임시묘비 전면에는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의 묘'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높이는 실제 비석과 같은 3.49m다. 돌로 제작한 실제 비석은 내년 1월께 제작한다.

대통령의 묘역 규모, 봉분 및 묘비의 크기, 석물 구성 등은 모두 '국묘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하위 법령에 상세히 규정돼 있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원수의 묘비는 오석(烏石)으로 만들며 전면에는 '제×대 대통령 ×××의 묘'라는 글씨를 가로·세로 각각 20cm 내의 크기로 새긴다.

묘비 뒷면에는 대통령의 출생일·출생지, 사망일·사망지 등이 들어가고 왼쪽 면에는 가족사항, 오른쪽 면에는 주요 공적과 경력이 새겨진다. 뒷부분에는 봉황무늬를 화강석으로 조각한다. 이날 제작된 임시 묘비에는 전면 글귀만 들어갔다. 묘두를 돌, 상석, 향로대, 추모비도 추후 설치한다. /연합뉴스

동서화합으로 사랑을 나누는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전라남도과 경상북도의 세대화합, 더 나아가 상호교류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화합의 장을 만들며, 22개시군 내 후원자와 기업,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돕는 사업입니다.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후원문의 | 061-274-0041
후원계좌 | 농협 301-0081-6148-11 (어린이재단)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동서화합천사기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1,004명의 후원자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 장기 후원 1억원 대표후원자 >> 천사보금자리 및 문화예술사업에 기금 사용

천사보금자리

화장실 문도 없는 푸세식 화장실, 그리고 욕실이 없어 수도대에서 샤워하는 동천이(가령네) 주거 지원



문화예술사업지원(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빈곤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적 심리적 발달 및 빈곤문화의 개선 프로젝트

